

39. 野付(노쓰케) 반도와 打瀬舟(저인망선) - 別海町(베쓰카이 마을), 標津町(시베쓰 마을)  
전장 26k m의 일본 최대의 사취로, 擦文(사쓰문)시대의 수혈식 주거도 보여진다. 江戸(에도)시대에는 國後(구나시리)로 통하는 요충지로서 통행소가 설치되어 북방 경비의 무관들도 주재하고 있었다. 도도와라, 나라와라의 특이한 경관과 봄, 가을에 노쓰케 만에 떠있는 저인망선의 풍경이 많은 사람들을 매혹하고 있다. 홋카이도 새우잡이에 이용되는 저인망선은 노쓰케 만의 유명한 풍물로 안개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배 그림자는 환상적이다.



40. 왓카/小清水(고시미즈) 원생화원 - 北見(기타미)市, 고시미즈 마을  
왓카원생화원은 「용궁가도」라 불리는 일본 최대의 해안초원이다. 오후츠크 해와 사모마 호수에 면해 있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300종류 이상의 풀과 꽃이 피어 그 모습을 자랑한다. 차량 진입금지,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식림 등 한 발 앞서가는 계획도 시도하고 있다. 고시미즈 원생화원은 한 때 쇠퇴기를 맞았지만, 1993년 부터 들날내기, 구근식물재배, 외래종식물제거를 통해, 꽃이 만발한 공원으로 되살아났다. 공원 뒤쪽에 있는 湧(도후쓰) 호수를 따라 피는 히오우기야야메(복꽃의일종) 군락과 거기에 방목되는 말떼들은 보기드문 장관이다.



41. 피어슨 기념관 - 기타미시  
미국인 선교사 G. P. 피어슨 부부의 사저로 1914년에 지어졌다. 부부는 홋카이도 각지역을 전도하며, 그 정착지로 정한 곳이 아이누어로 「땅의 끝」을 의미하는 野付牛(노쓰케우시 : 현재의 기타미)였다. 공창폐지운동이나 자연활동 등 피어슨 부부의 뜻은 지금도 기타미의 정신적 지표로서 기려지고 있다. 설계자는 近江兄弟社(오우미형제사)의 창설자라고 알려져 있는 W. M. 보리스.



42. 삼림철도 증기기관차 「兩宮(아마미야)21호」 - 遠軽町(엔가루 마을)  
「아마미야 21호」는 도쿄의 아마미야제직소에서 제조된 첫번째 일본산 11톤 기관차다. 1928년, 丸瀬布(마루세투) - 武利意(우리이)삼림철도에 배치되어 국유림 에서 베어낸 통나무와 생활물자의 운송을 담당하여 왔지만, 196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청으로 1976년, 기타미營林局(산림국)으로부터 마루세투(현재의 엔가루) 마을에 양도되어 「삼림공원 휴식의 숲」을 조성, 기관차도 운행하게 되었다. 홋카이도 내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보존된 것으로는 아마미야21호가 유일한 기관차다.



43. 오후츠크 연안의 고대 유적들 - 網走(아바시리) 지역  
오후츠크 연안 지역에서는 縄文(조몬), 続縄文(속 조몬), 오후츠크 문화, 아이누 문화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유적이 분포해 있고, 엔가루 마을의 白滝(시라타카) 지역 등의 내륙부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을 많이 볼 수 있다. 오후츠크 연안의 유적은 사할린·시베리아 등의 대륙문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수혈식 주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타미시의 常呂(도코로)유적, 오후츠크 문화 유적으로서 유명한 아바시리시의 모요로 패총, 斜里町(사리 마을)에 있는 조몬후기의 朱円周堤墓(슈엔슈테이 묘) 등이 대표적이다.



44. 유빙과 가린코 호 - 紋別(몬베쓰)市 등  
겨울의 오후츠크 연안에 밀려오는 성가신 바다의 얼음덩이를 오히려 유빙 관광으로 이용하고 있다. 몬베쓰시에서는 알래스카의 유진 개발에 시험적으로 만들어진 쇄빙선 「가린코호」라고 이름지어 유빙이 떠다니는 바다로 출항시켰다. 육지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의 오후츠크 타워에서는, 해저 7.5 m에서 유빙의 관찰과 유빙 밑의 생태관측이 가능하다. 몬베쓰시는 유빙연구 국제도시를 선언하고 유빙의 소중함을 호소하고 있다.



45. 둔전병(屯田兵)마을과 병사(兵舎) - 홋카이도 각지  
둔전병은 1875년 삿포로군 琴似(고토니)마을에서 시작되어, 개척과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1899년 土別(시베쓰), 剣淵(켄부치)에 이르기까지 홋카이도 각지에 37곳의 兵村(병사들의 마을)이 세워졌다. 上湧別町(가미유베쓰 마을)에는 당시의 행정구획인 北兵村지구와 南兵村지구가 남아 있다. 삿포로시 고토니, 시베쓰市, 厚岸町(앗케시 마을) 大田(오타), 根室(네무로)市 和田(와다) 등에 병사가 남아 있고 삿포로시 新高토니, 江別(에베쓰)市 野幌(노후로)에 중대본부의 건물이 보존되어 있으며기타미시의 信善光寺에는 둔전병 인형 75개가 모셔져 있다.



46. 홋카이도 말의 문화[집말, 日高(히다카)의 경주마] - 홋카이도 각지  
홋카이도의 말의 역사는 오래되어 메이지 시대에는 농경 등 개척의 노동력으로서 사람들과 고생을 함께 해 왔다. 농경 말의 힘을 겨루는 집말 축제는 「반에이 경마(말이 끄는 집말 경주)」로 발전하였고, 더 빠른 말을 얻기 위한 경주마 더러브렛의 개량이 진전되었으며 浦河町(우라가와 마을)의 「JRA 히다카 육성목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우수한 말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말의 산지인 히다카의 목장 풍경은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47. 아이누어 지명 - 홋카이도 각지  
홋카이도 지명의 약 8할은 아이누어에 유래한다고 한다. 아이누어의 지명은 낯선 장소에서도 그 이름으로부터 지형이나 위치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가타카나(일본문자의 하나)나 한자로 표기되어 원음과는 다른 경우도 있으나 그 본래는 아이누 민족의 자연과 조화된 전통적생활 속에서 만들어 졌다. 아이누 문화의 의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48. 아이누 문양 - 홋카이도 각지  
세계의 각 민족은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적 의미가 함유된 「문양(무늬)」이 있다. 아이누 문양의 기본은 「소용돌이 무늬(모레우)」, 「가시가 있는 모양(아이우시)」, 「비늘무늬(라무라무노카)」의 세 종류다. 이것들을 조합 하여 연속된 인상으로 이어간다. 그 형상, 도안과 색채는 인상 깊은 미적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것으로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9. 아이누 구전문예 - 홋카이도 각지  
아이누 민족이 발전시켜 온 문화 「구전문예」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전승되어 왔다.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고 즐기고 또 그 뜻을 되새기면서 전해져 온 것으로 영웅서사시·신화·산문설화 등이 있다. 「사코로베」 「유카라」 등으로 불리는 영웅서사시는 짧은 멜로디를 반복하며 하늘을 나는 등의 초인적인 능력에 관한 이야기로 들려 주는 웅대한 스토리다.



50. 연어의 문화 - 홋카이도 각지  
연어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식품, 그 역사는 오래되어 擦文(사쓰문)시대의 유적에서 연어를 포획하는 데 사용됐다고 추정되는 장치가 발견됐고, 또 아이누 민족도 연어잡이를 생업의 근본으로 해왔다. 산란을 위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습성을 이용한 어업법이 발달했고, 어미물고기의 보호나 인공부화사업도 일찍부터 행해지고 있다. 모친회화는 생명탄생의 드라마를 연출해 내며, 이는 눈에 보이는 자연환경보호의 지표이기도 하다.



51. 홋카이도의 라면 - 홋카이도 각지  
라면의 기원에는 여러 설이 있으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홋카이도민의 식생활 속에 정착하여 한랭한 기후에 맞는 깊고 진한 맛의 라면이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식문화로 발달했다. 라면은 홋카이도의 관광 자원으로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며 삿포로·하코다테·旭川(아사히가와)·釧路(구시로)등 지역마다 특색을 지닌 라면이 각광을 받아 그 지역 라면 붐의 기폭제가 되었다.



52. 징기스칸 요리 - 홋카이도 각지  
징기스칸 요리의 발상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홋카이도에서 가장 폭넓게, 또 특징적으로 발달했다. 중국 대륙에도 그 원형이 보이지만, 맛내기 등 양고기를 맛있게 먹기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새로운 요리로서 홋카이도에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의 매력의 하나인 것과 동시에 꽃놀이 등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징기스칸은, 불판을 중심으로 둘러싼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